

휴가철 n차 감염 확산...거리두기 2단계 상향 주말이 고비

광주·전남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광주 5명·전남 4명 확진자 발생

2명 확진 곡성 공적 수해복구 중단

관광객 유입 주말·휴일 방역 총력

시·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

이번 주말과 휴일이 광주·전남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휴가 막바지를 맞아 광주·전남을 찾는 다 지역 관광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데다, 지역 내에선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확진자에 이어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이용객들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선 마스크 쓰기과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엔 외출을 삼가하고, 집안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 중흥골드스파와 관련해 40대와 10대, 20대 여성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흥골드스파는 대전 확진자 일가족 4명이 지난 16~18일까지 머물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주 북구에 사는 10대 초등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인 광주 226번의 딸이다. 광산구 수안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도 이날 오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명이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유흥업소 영업장 방문자와 접촉자 등 1900여명을 검사했으며,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보고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한 상태다.

전남에서도 이날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50명으로 늘었다. 곡성 2명, 순천 1명, 광양 1명으로 왕래가 많은 휴가철을 틈타 코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천주교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 문 대통령,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장).

/연합뉴스

나 바이러스가 전남 곳곳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전남 47, 48번 확진자는 곡성에 거주하는 부자(父子)다. 30대 남성과 그의 아들(3)은 지난 15~16일 익산 남동생 집에 갔다 감염됐다. 섬진강 홍수로 집이 침수돼 동생 집에서 하룻밤 자고 곡성 장인 집에 임시 거주하던 중 지난 18일 밤 익산 남동생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아 19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48번 확진자로 분류된 그의 세 살배기 아들 역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다행히 배우자와 장인·장모 등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9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48번 확진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생 등 34명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해복구지역, 어린이집, 식당 등 곳곳이 술렁이면서 곡성군은 이날 하루 공적(公的) 수해 복구를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다만 공적 차원의 수해복구 인력·장비 투입은 중단되지만, 개별 주민이 진행하는 복구 작업은 유지된다.

전남 49번은 지난 18일 광양에 출장차 방문한 50대 서울 거주 남성이다. 회사 출입구 발열 감지시스템에 감지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화순 모친택에서 머물다 19일 오후 양성 판정받았다. 유일한 접촉자로 파악된 모친은 음성이다.

전남 50번 확진자는 순천 거주 70대 여성이다. 지난 13일 사업 설명회 방문차 서울에 다녀온 뒤 15일부터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났고, 19일 확진 판정받았다. 접촉자인 아들, 지인 등 5명은 모두 음성이다.

전남도는 전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비치면서 막바지 휴가철인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 각지에서 적지 않은 관광객이 밀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찾아오는 관광객을 행정력을 동원해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주요 관광지마다 방역 요원 등 인력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순간 방심에 모든 노력 수포로 돌아가선 안돼”

문 대통령, 천주교 지도자 초청 오찬...종교계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방역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국민이 힘을 모아줌에 따라 방역·경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기적 같은 성과가 자칫하면 무너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게 가면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염 추기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분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국정당화 나선 통합당 호남 인사 중용론 ‘고개’

제2 지역구 갖기·비례 우선 추천 추진

5·18 정신을 담은 정당·정책을 추진한데 이어 5·18 국립묘지에서 ‘무릎 사과’를 한 미래통합당의 ‘호남 끌어안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통합당이 호남 출신 인사 중용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최근 일련의 행보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비례대표 25% 할당 같은 당장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도 호남지역에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낮은 지지율 탓에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에 2016년 보수정당 첫 호남 출신 당 대표에 오른 이정현 전 의원을 제외하

면 호남 출신이 당 요직에 앉은 적이 거의 없었던 만큼 ‘쇄신’의 측면에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 과정에서 옛 국민의당 소속 호남 인사들이 일부 유입되기는 했지만, 통합당 내 호남 인사는 여전히 기근에 비유될 만큼 소수인 게 현실이다. 보성 출신의 정양석 서울시장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총괄할 예정이다. 함경우 조직부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이다.

비례대표로 통합당에 합류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전북 전주율을 지역구로 가졌던 정운찬 당 국민통합특위 위원장, 순천이 고향인 김용 의원(송파갑), 각각 광주와 전주 출신인 전주혜·조수진 의원도 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비대위원과 김은혜(성남 분당갑) 대변인은 부친이 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어제 광주에서 시민 한 분이 비대위원에 호남 인사를 합류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호남 행기기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은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과 호남 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합당은 수도권 강세 지역에 호남 인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이 80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대선 도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동서통합을 명분으로 호남 연고가 있는 김 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를 넘어 대선 후보까지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대표, 항구적 시각 상징물 만든다

광주시 이달 중 용역, 연내 제작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시각 상징물을 개발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정신을 압축해 표현하는 이미지를 만들기로 하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5·18 기념행사위원회에서 해마다 엠블럼, 배지 등을 제작해왔으나 연속성이나 인지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분홍 동백꽃 상징물이 자리 잡은 제주 4·3

처럼 항구적인 대표 디자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달 중 제안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각 상징물 도안 제작을 의뢰할 방침이다. 5·18 40주년인 올해 안에 제작을 완료해 홍보에도 나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는 진상 규명과 관련법 개정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압축적인 상징물을 통한 홍보도 전국화와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 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한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증-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빵암공원 앞 위치